

보선 이어 '리턴매치' ... 남녀대결 양상

■ 동구청장 노희용 vs 양혜령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청장 경선은 노희용 후보와 양혜령 후보가 펼친다. 애초 오형근 후보까지 포함된 3자 대결이 예상됐었지만, 오 후보가 8일 전격적으로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노 후보와 양 후보는 지난 2012년 보궐선거에서 한차례 맞붙은 적이 있어 이번 경선이 '리턴매치'다.

지난 2012년 보궐선거로 동구청장에 당선된 노 후보는 짧은 시간, 현장 밀착형 구정 활동을 펼치며 지역 민심을 다져오면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광주시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정책실장 등을 거친 노 후보는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짧은 구청장 재임기간에도 산수동 호두메마을 도시재생사업 착공 등으로 도심속 공·폐가에 대한 창조적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복지공동체 1대1 결연사업 추진 등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 기틀 마련과 함께 구 위생매립장 다목적 체육관 유지 등으로 아시아문화중심 지구에 걸맞는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노, 풍부한 행정경험 강점 양, '백화 포럼' 대표 맡아

노 후보는 공약으로 ▲문화전당 주변 문화공방·예술촌·게스트하우스 조성 ▲옛 위생매립장 부지 동구문화체육공원 조성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와 주민복지공동체 활성화 ▲문화콘텐츠, 인쇄출판, 뷰티산업 등 도심형 산업 육성 ▲구립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로 주민사랑방을 제시했다.

양혜령 후보는 광주 5개 구청장 경선 후보 중 유일하게 여성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2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노희용(민주당) 후보와 맞붙었다가 석패했다.

양 후보는 보궐선거 패배에 '외신상담' 하며 지역구 활동 보복을 날려줬다. 현재 지역공동체 '백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아 봉사활동, 토론회, 강연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표발을 다지고 있다.

특히 동구에서 지금까지 세 차례 광역의원 지방선거 및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만큼 인지도가 높다는 게 강점이다. 그는 "깨끗한 정책 경쟁으로 아름다운 경선을 선보이겠다"고 경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양 후보는 ▲임기 내 동구 재개발·재건축 완료 ▲도심 공용지하주차장 건립 추진

■ 새정치 광주 동구청장 경선후보



이름(나이)	노희용(53)	양혜령(53)
주요경력	• 광주 동구청장 • 전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 차관위원장 • 전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장
주요공약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 월남·용산·선교지구 6000세대 명품주거단지 조성 • 도심형 산업육성	• 재개발·재건축 완료 • 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 • 의료관광산업개척

▲지역 돌봄 강화를 통한 이웃가족 행복시대 완성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한 지역민 일자리 창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 등 생활쓰레기 자원화 선도도시 실현 등 7개 항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결정되면 통합진보당 김미화(민주노동 광주본부 부분부장) 후보와의 일전을 벌이게 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행정전문가냐 생활정치인이나

■ 북구청장 송광운 vs 조호권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청장 후보 경선은 3선에 도전하는 송광운 후보와 이에 맞서는 조호권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경선 후보 모두 옛 민주계다.

이번 북구청장 경선에서는 3선 구청장과 새로운 인물을 놓고 배심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송 후보는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과 지방에서 공직생활을 한 노련한 행정 전문가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송 후보는 신뢰와 소통의 행정으로 지난 8년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리

고 중단없는 북구발전을 위해서는 검증된 구청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송 후보는 "북구의 경우 전체 예산의 67%가 복지예산으로, 전국에서 복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다"면서 "따라서 행정전문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로부터 민선 5기 4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점과 각종 정부 공모·평가에 응모해 442회 수상과 241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은 점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송 후보는 민선 6기 10대 핵심프로젝트

송, 매니페스트 4년 최우수 조, 실물 경제 경험 많아

로 ▲청렴한 자치구 ▲일자리 2만개 창출, 첨단3지구 개발 ▲행복주택건립, KTX 광주역 진입 등 도심재생 활성화 ▲친환경 급식센터 설치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 ▲호남고속도로 용봉IC진입도로 개설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의 3선 도전에 저지하기 위해 나선 조호권 후보는 경제전문가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해온 생활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선 시의원인 조 후보는 제6대 하반기 광주시의회 의장과 제5대 광주시의회 부의장, 행정위원장 등을 지내며 정치력을 쌓아왔고, 주민 소통 뿐 아니라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또한,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주관 매니페스트 약속대상을 3회 연속 수상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한 우수조례 평가에서 '광주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 제정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 성과도 눈에 띈다.

그는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는 증권회사 지역본부장을 지낸 실물경제 경험과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친 경력 덕분에 경제

■ 새정치 광주 북구청장 경선후보



이름(나이)	송광운(62)	조호권(55)
주요경력	• 광주 북구청장 •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 제6대 광주시의회 의장 • 전 유진투자증권 서울·수도권 본부장
주요공약	• 첨단 3지구 개발 • 무등산 생태문화 관광벨트 • 고용복지 종합센터 설치	• 공익활동협력재단 설립 • 반값 생활비 실현 • 도시재생

전문가라고도 평가받고 있다.

조 의장은 ▲북구 공동체 공익활동협력재단 설립 ▲반값 생활비 실현 ▲도시재생 등 3대 역점과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함께 누리는 북구 경제 등 16대 분야별 과제도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두 후보의 경선을 통해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바딤민심을 다지고 있는 통합진보당 정형택 민주노동 광주지역 부분부장과 무소속 진선기 후보 등과 본선을 치르게 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구도심 구도... 변수많아 예측 불허

■ 광산구청장 민형배 vs 서종진 vs 송경중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종진 전 광산부구청장과 송경중 광주시의원이 현직인 민형배 정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100% 공론조사투표로 경선이 진행되는 만큼 변수가 많아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일단 경선구도는 구도심인 '광산갑'을 기반으로 한 서 후보와 신도심인 '광산을'을 주요 기반으로 한 민형배, 송경중 후보 간 대결이 된 형국이다. 그럼에도, 광산의 인구가 훨씬 많아 유불리를 쉽게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변수는 공천 배제된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 지지층의 움직임이다. 송 전 정장이

고정표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빙의 대결에서는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 후보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책, 사람 중심 정책들을 펼쳐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며 "특히 전국 최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광산구 발(發) 전국 정책으로 확산됐다"고 자평했다.

민 후보는 또 "작은도서관 75곳 증설, 근린공원과 생활체육시설 58곳 증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 주민밀착형 행정으로 광산구가 지난해 보건복지부 선정 최우수기관 4관왕, 지역사회복지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민,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 토박이 '안전전문가' 송, 의정활동 활발 장점

민 후보의 주요 공약은 ▲작은도서관 질적 도약 ▲신도심 대중교통문제 해결 ▲도심형 보건지소 건립 ▲어린이·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어르신 인생2모작 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서 후보는 34년간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내 최장수 소방방재청 상황실장을 지낸 '안전전문가'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또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광산 출신인 점도 내세우고 있다.

서 후보는 "1000시간 민심택시운전으로 광산의 실정과 주민의 욕구를 잘 알고 있다"며 "0세부터 100세까지 안녕하게, 중소서민에서 외국인까지 안전하게, 가정에서 학교·직장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광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전도시 광산 ▲신·구도심 격차 축소 ▲특허로 부자 되는 광산 ▲뿌리가 튼튼한 생산 도시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송 후보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광역의원으로 이룬 7대 성과로 광산시대를 열었다"며 "7대 비전으로 신광산 100년을 열겠다"고 각오를 다

■ 새정치 광주 광산구청장 경선후보



이름(나이)	민형배(54)	서종진(62)	송경중(45)
주요경력	• 광주 광산구청장 • 전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 전 광산구 부구청장 • 전 소방방재청 상황실장	• 제6대 광주시의회 부의장 • 전 광산구의원
주요공약	• 신도심 대중교통문제 해소 • 도심형 보건지소 건립 •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 안전도시 광산 건설 • 신·구도심 격차 축소 • 생산도시 광산 조성	• 고품격 문화축제도시 조성 • 생활체육 으뜸도시 건설 • 일자리 넘치는 풍요도시 건설

졌다.

그가 내세운 성과는 ▲광산 경유 도시철도 2호선 ▲황룡강 물축제 프로젝트 수립 ▲교육광산 기반 조성 ▲하남공단 악취 절감 실현 등이다.

또 그는 ▲교육 으뜸도시 ▲호남 교통 중심도시 ▲광주의 생태중심도시 ▲고품격 문화축제도시 ▲일자리 넘치는 풍요도시 ▲살맛나는 복지도시 ▲생활체육 으뜸도시 등 7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비전의 실현과 광산구민의 통합을 위해 '광산발전 원탁회의'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 박지경기자 ji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결혼정보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교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제8기 인문학강좌 수강생모집 인문학, 그 향을 말하다

5.15-7.03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8주) / 동구청 앞벤처빌딩 7층 대강당

개강일시 2014년 5월 15일(목) 저녁 7시 등록비 100,000원(입사 2회 포함)

접수문의 대동문화재단 문화사업팀 TEL. 070-4496-5510, 062-674-6567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daedongc.com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강의일정	날짜	내용	강사
1강	5.15	김성녀의 소리사랑 이야기	김성녀 배우,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중앙대 교수
2강	5.22	Again and Again (Again 1976)	채은옥 가수 (빛물, 석별, 어느날 갑자기 등)
3강	5.29	사대부의 유배와 낙남 -그명파매	조상열 사대문화재단 대표, 인문학 전문 강사
4강	6.5	문화용성시대 -내 삶을 바꾼 문화예술	임흥익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전 중소기업처 차장
5강	6.12	화가의 정원 -죽실한 원림	박태후 문인화가, 죽실한 대표
6강	6.19	책이란 무엇인가	이기용 도서출판 열화당 대표,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7강	6.26	도전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조용갑 성악가, 베르디국제콩쿠르 1위 수상
8강	7.3	관음으로 꽃 피우는 문화	서경주 전 광주MBC 사장, 영국카디프 웨딩드레아 석사

현장 답사 1회, 5월 24일(목) 강릉 선교동 - 허준 생가-경포대 2회, 6월 6일(금) 송백 재현 의림지 - 단양 팔경 - 고수동굴

* 강의 일정 및 현장 답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민법인 대동문화재단 **빛고을 문화대학** 주최/주관 www.daedongc.com 대동문화재단